

조선봉건왕조시기철학에서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물론적견해

로 학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은 오랜 력사에 걸쳐 발전하여왔습
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89페이지)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오랜 력사에 걸쳐 발전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견해는 비록 미숙하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
미 고대시기부터 제기되어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새로
운 특징을 띠고 제기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세계의 시원, 본질은 기
이며 세계의 모든것이 기로부터 발생하고 그것이 자체로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보는 기일
원론적견해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기일원론철학은 15~16세기 김시습과 서경덕에 의하여 체계화된
후 17~18세기 장유, 임성주를 거쳐 리규경, 최한기에 의하여 더욱 풍부화되였다.

김시습(호는 매월당, 1435—1493)은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 기로 보았다.

그는 천지사이에 차있는것은 기이며 모든 다양한 사물현상은 기로부터 발생하고 기
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천지사이에 차있는것은 모두 기이다. 우로
해와 달이 오고가는것이나 더위나 추위, 음과 양이 서로 교체되고 사물현상이 발생소멸하
는 모든것은 다 기이다. 아래로 산천이 응결되고 무너지는것이나 바람, 비, 서리, 이슬이
내리거나 초목이 무성했다가 시들어가는것, 사람과 동물이 운동하고 사멸하는 모든것 역
시 우주사이에 기가 차있기때문이다.》(《매월당집》 권2 복기)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현실세계의 객관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기
초가 기이며 개별적사물들은 기의 구체적형태라고 하는 견해가 담겨져있다.

그에 의하면 기에는 음양이 내포되어있으며 음양을 내포한 기가 선회하는 과정에 가
볍고 맑은 기는 위로 올라가 천체를 이루고 무겁고 흐린 기는 아래로 모여서 다양한 사
물현상을 이룬다. 이 음양의 기가 경중(가볍고 무거운것), 청탁(맑고 흐린것), 수박(순수하
고 거친것), 정편(바르고 치우친것) 등 각이한 성질을 가진 기로 갈라지고 이 각이한 기
들이 각이한 방식으로 결합됨으로써 사물의 다양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도 사람이 동물보다 바르고 순수하고 맑은
기를 타고났기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개별적사람들의 차이도 기의 결합방식과 관련되어있
다고 하였다.

김시습은 기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원기가 만물을 주재한다.》(《매월당집》 권4 론
위치필법삼대론)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시원에 대한 김시습의 견해는 매우 소박하고 자연발생적이였다. 그는
세계의 시원으로서의 기를 구체적인 사물현상으로 이해하였을뿐아니라 그자체의 특성도

리론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서경덕(호는 화담, 1489-1546)은 세계의 본질, 시원을 물질적인 기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그는 《맑고 허한 기가 무한한 공간에 가득차있어 크게 모인것은 천지를 이루고 작게 모인것은 만물이 된다.》(《화담집》 권2 귀신사생론)라고 하였다.

서경덕은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천지만물은 다 기로 이루어져있으며 기의 각이한 존재방식이라고 하였다. 지어 그는 사람의 정신도 기가 모인것으로 인정하였다. 서경덕의 이 견해는 속류유물론적인 제한성이 있으나 관념론적견해와 대립되는것이였다.

서경덕은 세계의 시원으로서의 기의 물질적성격을 밝히였다. 그는 기를 형체와 질을 가지지 않은 미세한 립자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기를 움켜쥐자면 비여있고 잡자면 없다. 그러나 도리어 실재하여 없다고 말할수 없다. 이 경지에 이르면 들을 소리도 없고 말을 냄새도 없다.》(《화담집》 권2 원리기)라고 하였다.

서경덕은 물질세계의 공간적무한성과 시간적영원성도 인정하였다.

서경덕은 물질세계의 공간적무한성을 태허 즉 기로 표현하였다.

서경덕은 태허를 두가지 뜻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는 다양한 천지만물이 출현하기 이전의 공간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천지만물이 발생한 이후의 공간을 의미한다. 기는 최초에 태허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그가운데서 모이고 쌓여 다양한 천지만물을 이루게 되며 따라서 천지만물은 태허속에 있게 된다.

태허 즉 기에 관한 서경덕의 견해에는 물질의 존재방식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소박한 표상과 물질세계의 무한성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이 담겨져있다.

서경덕은 무한한 공간에 가득차있는 기를 시간적으로 시초도 종말도 없으며 창조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영원한 물질적존재로 인정하였다. 그는 기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사물은 끊임없이 발생소멸하지만 구체적인 사물을 이루는 시원적인 기는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개별적인 사물의 발생소멸을 기의 취산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기가 모이면 개별적인 사물이 되고 흩어지면 개별적인 사물은 없어진다는것이다. 개별적인 사물 그 자체는 발생소멸이 있으나 기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기는 모이고 흩어지는것은 있으나 있고 없는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서경덕은 기자체는 영원하다는 기불멸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나는 또한 사생인귀는 다만 기의 취산뿐이라고 말한다. 취산은 있어도 유무는 없으니 기의 본질이 그러하다. 맑고 허한 기가 무한한 공간에 가득차서 크게 모인것은 천지가 되고 적게 모인것은 만물이 되니 흩어지는 형세가 미미하고 현저한것과 오래고 빠른것이 있을뿐이다. 기가 종래 흩어지지 않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기의 맑고도 허한것은 본래 그 시초도 없고 또 종말도 없는 까닭이다. ...한가락의 초불의 기라도 그것이 눈앞에서 흩어지는것 같으나 그 남은 기는 마침내 흩어지지 않으니 어찌 다 소멸하여 무예로 돌아간다고 할수 있겠는가.》(《화담집》 권2 귀신사생론)라고 하였다.

서경덕에 의하여 기불멸사상이 제기됨으로써 리에 비한 기의 보편성이 리론적으로 보다 명백히 확증되게 되었으며 리의 영원성을 설교하던 성리학적관념론철학을 타파할수 있게 되었다.

장유(호는 계곡, 1587-1638)는 17세기초 기일원론철학의 대표자이다.

장유는 세계의 시원을 무극자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그는 《모든 사물이 갖추어져 천지에 충만된것이 모두 무극자가 한짓이다.》, 《이것(무극자)이 하늘과 땅의 어머니이며 만물의 시조이다.》(《계곡집》 3권 잡저 우언이수)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우주사이에 충만된 모든 사물의 존재와 운동의 최종적인 시원이 무극자이다. 무극자를 시원으로 하여 모든 사물이 이루어졌으며 무극자에 의하여 모든 운동이 있게 된다.

장유가 세계의 시원으로 본 무극자는 물질적실체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그가 《무극자가 바로 태허이다.》, 《무극은 원기를 담고있다.》(《계곡집》 29권)라고 한데서 표현된다.

원래 무극이란 무궁, 무한의 뜻을 담고있다. 장유가 무극자를 세계의 시원으로 본것은 결국 기가 세계의 시원이며 기로 이루어진 물질세계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것을 이론적으로 론증하기 위해서였다.

장유는 기의 공간적무한성을 태허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태허의 본체는 기이다.》라고 하면서 태허와 기를 일치시켰으며 태허는 안팎이 없이 무한한것이라고 하면서 기의 무한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장유의 무극자설, 태허설은 서경덕의 유물론의 계승발전이었다. 특히 《세계의 최초시원이 무극자이며 무극자가 바로 태허이다.》는 장유의 견해는 철학사에서 오래동안 벌어졌던 《무극이태극》에 대한 논쟁을 유물론적으로 결속짓고 중세유물론철학발전을 추동하는 작용을 하였다.

임성주(호는 록문, 1711-1788)는 18세기 기일원론철학을 계승발전시킨 대표자이다.

임성주는 세계의 시원으로서의 기의 특성을 밝혔다. 그는 기를 구체적인 형태와 질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미세한 실체라고 하였다. 그는 《기란 극히 정밀하고 극히 묘하고 극히 작은 실체이다. 그러나 만질수도 없고 들을수도 없으며 육안으로 볼수도 없다.》(《록문집》 권13 잡저)라고 하였다.

임성주는 기의 공간적무한성과 시간적영원성을 인정하였다. 그는 《기로 충만되어있는 우주자연은 둥그렇고 큰 공간으로서 가없이 넓어 안팎도 없고 갈라지는 끝도 없으며 잇닿는데도 없고 시초와 종말도 없다.》(《록려잡식》)라고 하였다.

임성주는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 기로 보고 세계의 물질적통일성과 시공간적영원성, 무한성을 론증하였다.

임성주는 리기호상관계문제에서도 기일원론적립장을 견지하였다.

임성주는 리를 세계의 시원으로 보는 관념론적견해를 비판하고 리는 사물자체의 법칙으로서 사물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그는 정신적리에 의한 세계의 통일성을 설명한 관념론적견해인 리일분수설을 반대하고 세계가 물질적기로써 통일되어있다는 유물론적견해인 기일분수설을 주장하였다.

임성주의 기일분수설은 성리학의 전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고 유물론발전에 활력을 부어준 혁신적인 견해였다.

홍대용(호는 담헌, 자는 덕보, 1731-1783)은 18세기 실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며 이름있는 유물론철학자이고 자연과학자이다.

홍대용은 깊은 자연과학지식에 기초하여 우주자연에 대한 유물론적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세계의 시원을 우주공간에 충만된 기라고 하였다. 홍대용은 기가 쌓이고 모여서

응결되면 일정한 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구, 달, 해와 별 같은 천체들은 기가 모여 질을 이루고 허공에 분포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무한히 넓은 우주공간에 충만된것은 기이다. 안도 바깥도 없고 시초도 종말도 없는 이 기가 쌓이고 모이고 응결되어 질을 이루고 허공에 두루 퍼져돌면서 멈추어있게 되는데 지구, 달, 해, 별들이 바로 그것이다.》(《담헌서》 내집 권4 의산문답)라고 하였다.

홍대용은 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 다른 철학자들과 이해를 달리하였다. 그는 기를 발생도 소멸도 되지 않고 질적특성은 가지고있지 않으나 감각적속성을 가진 시원물질이라고 이해하였다. 홍대용은 기자체에는 질이 없으나 모이고 쌓여 응결하면 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홍대용이 말한 질이란 물이나 흙과 같은 개별적사물현상의 구체적속성을 의미하였다. 그는 모든 사물현상은 형체와 질을 갖추게 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시원물질인 기와 질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질이 풀리면 기로 돌아가고 기가 엉키면 질을 이루는데 질과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사물현상은 발생소멸하지만 질과 형체가 없는 기는 발생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홍대용은 기로부터 천지만물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세계의 시초에는 물질적기가 있었을뿐인데 그로부터 천체들이 발생하고 지구가 형성된 다음에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홍대용은 만물의 형성, 발생과 번식, 성장, 소멸과정을 기자체의 끊임없는 운동변화와 사물현상들의 호상련관 등을 사물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는 균일한 상태의 기가 끊임없이 운동변화하고있었는데 기의 운동과정에 맑고 흐린것이 갈라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모이고 응결하여 각이한 질을 가진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담헌서》 내집 권1 답서성지론심설) 그리고 기로부터 만물이 형성될 때 처음에는 지구, 해, 달과 같은 천체가 형성되고 다음에는 기와 해, 지구의 세가지 요인에 의하여 만물이 발생하고 만물이 발생한 다음에는 모든 사물이 자체로 배태, 번식, 성장, 소멸한다고 인정하였다.

홍대용은 우주세계의 형성과정을 기로부터 먼저 단순한 형태의 사물이 발생하고 점차 복잡하고 고급한 형태의 사물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인정하였다.

우주자연의 형성과정에 대한 홍대용의 견해는 천지만물의 발생과정을 태극과 음양5행의 도식에 의하여 설명하던 성리학자들의 견해와 다를뿐아니라 기의 운동변화의 원인을 음양의 호상작용으로 이해하던 전통적인 견해와 구별되는 새로운 견해였다.

박지원(호는 연암, 1737-1805)은 18세기 이름난 문학가이며 실학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다.

박지원은 우주자연의 시원적실재를 먼지(기와 같은것)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우주천체로부터 천지만물에 이르기까지 사물은 다같은 시원적존재인 먼지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우리가 사는 진계(지구를 말함)의 생각으로 미루어보아 저 달세계에도 또한 마땅히 물질이 있어 쌓이고 모이고 엉킨것이 마치 한점의 미세한 먼지가 쌓여서 대지로 된것과 같은것이다.》(《연암집》 권14 열하일기 곡정필담)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지구, 달, 해, 별들이 다같이 먼지로 이루어진 천체들이라고 하면서 달세계로부터 지구를 보면 지구도 해빛을 받아 반사하고 초생, 보름, 그믐이 있는것이며 별세계

로부터 지구, 달, 해를 보면 이것들도 조그마한 별에 불과하고 다만 크기와 온도조건에서 차이가 있을뿐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무기물이나 유기물은 모두 먼지가 운동변화하는 과정에 여러가지로 응결하여 질과 형태를 달리한것이다. 그는 이에 대하여 《먼지가 서로 엉키면 흙이 되고 먼지가 거친것은 모래가 되며 먼지의 단단한것은 돌이 되고 먼지의 진액은 물이 되고 먼지가 더운것은 불이 되고 먼지가 땀하면 쇠가 되고 먼지가 찌면 기가 땀해서 온갖 형태로 변화하는바 오늘 우리 사람이란 바로 이 여러가지 별레의 한 족속이다.》(《연암집》 권14 열하일기 곡정필담)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세계의 시원으로 본 먼지는 개별적인 사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와 질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 기와 같은것이였다.

박지원은 우주자연의 다양한 천지만물이 먼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동시에 기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기에 의한 만물의 형성을 기가 구체적인 질과 형태를 갖춘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박지원에게 있어서 먼지와 기는 본질상 같은것이며 먼지는 기에 대한 개념과 물질적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한것이였다.

리규경(호는 오주, 1788-?)은 19세기 전반기에 생존한 진보적인 철학자의 한사람이다.

리규경은 자연세계의 시원은 리가 아니라 기이며 천체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세상만물은 다 하나의 기가 운동하는 과정에 발생한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리규경은 《세계의 형체가 분명치 못한 기초에는 다만 일기뿐이였다.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만물이 생기는것도 이 일기에 의한것이지 다른 방도는 없는것이다. 만약 일기가 없다면 천지만물이 무엇으로부터 생기겠는가. 이미 기가 있었기에 하늘이 생기고 만물이 생기는 것이다.》(《오주연문장전산고》 권9 용기변증설)라고 하였다.

리규경은 기이외의 그 어떤 다른것도 만물형성의 시원으로 될수 없다고 하였다.

리규경은 선행사상가들이 제기한 물질세계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것과 기의 자기 운동에 대한 견해를 긍정하면서 일기는 우주공간에 가득차 시초도 종말도 없이 무궁하며 자기 스스로 운동한다고 하였다.

리규경은 우주발생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다만 혼돈한 물질적기로 이루어진 태극만이 있었는데 기가 스스로 운동변화하는 과정에 혼돈한 상태로부터 다양한 천지만물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리규경은 기에 의하여 다양한 천지만물이 형성될 때 매개 사물의 질적규정성이 주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천지간에 가득차있는것은 기이다. 기가 응결하고 모여서 질을 이룬것을 형이라고 한다.》(《오주연문장전산고》 권51 심성기도학자변증설)라고 하였다. 기가 모여 형태를 이룬것이 곧 형태를 가진 구체적인 사물이라고 한 리규경의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다양한 천지만물의 질적차이를 인정한것으로서 홍대용, 박지원에 의하여 제기된 질에 대한 견해를 계승발전시킨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리규경은 세계의 시원을 하나의 기라고 인정한데 기초하여 세계를 초자연적인 리에 의하여 설명하는 리일원론적견해를 반대하고 리란 기나 기로 이루어진 사물과 분리시킬수 없는 자기 스스로 운동하는 기(혹은 사물)의 법칙, 론리라고 하였다.

리규경의 이러한 견해는 비단 우주발생근원을 유물론적견지에서 력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뿐아니라 반동적성리학자들이 하늘을 신비화하면서 리를 천의, 천명과 직접 결부시키고있던 형편에서 그에 리론적타격을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최한기(호는 동강, 1803-1879)는 우리 나라 중세기의 기일원론철학을 마지막으로 총화하고 실학사상과 부르조아계몽사상사이에 다리를 놓은 진보적철학자이다.

최한기는 세계의 본질, 시원이 기라고 하였다. 그는 기로부터 천지가 발생하고 천지로부터 사람과 만물이 발생하는데 천지만물을 생성하는것은 오직 하나의 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천지에 꼭 차있고 만물에 침투되어있으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것이 나 모이지도 흩어지지도 않는것이나를 막론하고 기 아닌것이 없다. 내가 나기 전에는 천지에 기만이 있었을뿐이었는데 내가 나자 비로소 형체의 기가 생겼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이것이 천지의 기로 다시 돌아간다. 천지의 기는 크고 오래며 형체의 기는 작고 이내 없어진다. ...만물의 기에 이르러서는 다같이 천지의 기에서 출발하여 우주공간에 차있는 것이다.》(《기축제의》 신기통 권1 체통 천인지기)라고 하였다. 그는 지구, 달, 천체로부터 빛, 소리, 바람, 냄새, 인간의 힘과 사고활동, 언론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은 다 기이며 기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최한기는 기가 천지만물을 형성하는것은 사람의 자연법칙에 따라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그는 기로부터 천지만물의 발생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가 흩어져 몽롱한 기로 되고 몽롱한 기가 물로 되고 물이 진흙이 되고 진흙이 돌로 되며 흙과 돌의 큰 덩어리가 지구를 비롯한 천체로 되었다고 하였으며 유기물질의 발생발전에 대하여서도 력사적진화과정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최한기는 우주자연이 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기로 꼭 차있다고 보았을뿐아니라 기에 의한 세계의 통일성, 객관성, 시공간적무한성을 주장하였다.

최한기는 기를 우주공간의 대기, 공기 혹은 그것을 이루고있는 물질적원소로서 양기(산소), 경기(수소)와 담기(질소), 탄기(탄소)와 같은 객관적실재들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기의 속성을 비여있는것(허)같지만 비여있거나 없는것(무)이 아니라 있고(유) 실(실재)한것으로서 형질을 갖추고 빛, 맛, 냄새, 밀도, 중량(기타 견고성, 연장성, 불가침투성)과 같은 물리적속성을 가진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최한기는 기가 형질을 가질뿐아니라 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물도 형질을 가진다고 보면서 무기물, 유기물을 비롯한 만물의 다양성을 형질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질을 가진 기가 구체적인 사물을 형성할 때 그 사물에 고유한 새로운 질이 주어지며 이로 인하여 천지만물의 다양성이 생기게 된다. 그는 구체적인 사물을 이루기 이전의 시원적인 기와 구체적인 특성을 가진 사물의 기를 천지의 기, 형체의 기로 구분하였으며 천지의 기는 무한하고 영원불멸하지만 형체의 기는 부단히 발생소멸하며 소멸된것은 다시 천지의 기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최한기는 당시 철학에서 시원적범주였던 기를 감각적속성을 가지고있으면서 모든 사물현상에 공통적인 물질적실재로 이해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그 이전시기 기에 대한 견해에 비하여서는 일보 전진으로 된다.

그러나 그는 철학적범주로서의 물질을 자연과학적개념으로서의 물질과 구분하여보지 못하고 동일시한데로부터 기를 구체적인 사물을 이루는 물질적재료로 이해하는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최한기는 세계에 대한 기일원론적견해로부터 기를 모르고서는 세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학문을 기학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립장에서 리

일원론자들이 리를 세계의 시원으로 인정하며 리에 의하여 세계를 설명하는 관념론적견해를 비판하였다.

최한기는 리를 기운동의 법칙, 조리로 인정하였으며 리는 기와 절대로 뗄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리는 형체가 없고 감각적속성도 없지만 기는 형질과 감각적속성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형체가 없는 리는 형체가 있는 기속에 있으며 오직 기를 통하여서만 나타날 수 있고 인식할수 있다고 하였다.

최한기의 이러한 견해는 세계의 시원문제에 대한 철저한 유물론적견해로서 오래동안 철학의 중심문제로 되어오던 리기호상관계문제에 대한 관념론적견해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물론적견해는 지배적인 통치사상으로 되어있던 유교성리학에 반기를 들고 기에 의한 세계의 물질성을 주장함으로써 관념론적세계관에 타격을 주고 우리 나라 유물론철학발전에 기여하였다.

실마리어 기일원론, 리일분수설